

즉시 배포용: 2019년 12월 10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ANDREW M. CUOMO 주지사, HIV 예방 약물 트루바다(TRUVADA)에 대한 거짓 광고를  
제거하도록 페이스북에 촉구**

"저는 HIV 예방 약물 트루바다(Truvada)의 안전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페이스북의 거짓 [광고](#) 신고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. 해당 광고는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광고로, 페이스북은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.

보건 관계자와 연방 규제 당국은 트루바다 또는 노출 전 예방 요법(PrEP)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의학적 자격 증명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불어넣고 이러한 거짓 광고를 밀며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약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 이 광고 캠페인은 뉴욕 주민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으며, 우리 주 정부가 에이즈 전염병을 막기 위해 이룬 큰 진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.

지난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인정하여 우리는 새로운 HIV 감염자의 예상 수와 새로 확인된 HIV 진단자 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. 이러한 발전은 부분적으로 노출 전 예방 요법의 사용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. 10월, 뉴욕은 전국적으로 노출 전 예방 요법 인식의 주를 주최한 첫 번째 주였으며, 2018년에는 약 32,000명의 뉴욕 주민들이 노출 전 예방 요법 처방전을 받았습니다. 해당 처방 건수는 전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도 높았습니다.

이러한 유형의 거짓 광고가 트루바다 사용자에게 미칠 우려와 혼란을 예상하여 저는 지난 10월 이 약물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장하는 [서신](#)을 발행하도록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)에 지시했습니다.

저는 뉴욕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며, 뉴욕에 설 자리가 없고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이러한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의해 흔들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